

							대	기		파	수	꾼							
										연	양		초	등	학	교			
							6	학	년		라	온	반		강	연	우		
	지	금	은		20	94	년	.		우	리	는		과	학	이		더	욱
발	달	한		세	상	에		살	고		있	다	.		하	늘	을		나
는		자	동	차	에	서		달	나	라	로		여	행	을		떠	날	
수		있	는		소	형		로	켓	까	지		여	러		교	통	수	단
들	과		로	봇		등		많	은		것	이		과	거	와	는		다

르게 변했다. 그러나 과학이 발달한  
만큼 자연 환경은 오염되었다. 특히 대  
기는 심각하게 오염되었다. 하늘은 공  
장에서 내뿜는 매연으로 뒤덮였고, 햇  
빛을 받지 못한 식물들은 죽어 갔다.  
그 중에서도 아마존의 피해는 엄청났다.  
아마존의 나무들은 점점 말라 갔고 대  
부분의 생물은 죽었다. 지구의 허파라  
고 불리던 아마존의 대부분이 파괴되자  
안 그래도 탁한 공기는 더욱 탁해져

매	일	매	일		마	스	크	를		써	야		했	다	.		하	지	만
미	세	먼	지	도		막	는		마	스	크	는		덥	고		매	우	
불	편	했	다	.		그	래	서		많	은		과	학	자	들	이		편
하	고		미	세	먼	지	를		막	을		수		있	는		마	스	크
를		개	발	하	리	라	는		꿈	을		안	고		자	신	만	만	하
게		도	전	했	으	나		모	두		실	망	감	을		안	고		포
기	했	다	.		앞	은		한		치	도		보	이	지		않	았	고
황	사	라	도		불	어	오	는		봄	에	는		학	교	도		휴	교
하	고		사	람	들	은		집	에	만		있	었	다	.		그	러	나
집	도		안	전	한		것	만	은		아	니	다	.		과	학	자	들

은 모든 먼지를 막는 마스크는 개발하  
 지 못했으나, 거의 모든 먼지를 막을  
 수 있는 유리창과 벽은 개발했다. 이  
 유리창과 벽은 아파트나 집을 짓는데  
 쓰였다.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  
 의 모든 먼지를 막는 유리창과 벽일  
 뿐, 모든 먼지를 막는 유리창과 벽은  
 아니었다. 초초미세먼지는 막지 못한  
 것이다. 환경이 더욱 오염된 만큼 먼  
 지도 많아져 초초미세먼지가 등장한 것

이 다 .      그 러 나      단      하 나 ,      ‘ 녹 색 도 시 ’  
 의      돔      형 태 의      막 만 이      모 든      먼 지 를      막  
 을      수      있 었 다 .      그 러 나      만 드 는      과 정 이  
 까 다 록 고      매 우      비 쫓 기      때 문 에      오 로 지  
 ‘ 녹 색 도 시 ’ 에 만      쓰 였 다 .      상 황 이      이 렇  
 기 에      사 람 들 은      혹      나 가 야      할      데 라 도  
 생 기 면      산 소 통 을      멜      정 도 였 다 .      맘 은  
 공 기 를      전 문 적 으 로      파 는      곳 도      생 겼 다 .  
 사 람 들 은      밖 에      나 가 는      것 을      꺼 렸 고 ,  
 점 점      다 른      사 람 들 과      교 류 하 지      않 게      되

었 다 .      나 도      그 랐 다 .      그 저      로 봇 의      시  
 중 을      받 으 며      사 람 들 과      교 류 하 지      않 았 다 .  
 이 렇 게      된      원 인 은      대 기 오 염      이 었 다 .  
 바 깥 출 입 을      하 지      않 다      보 니      점 점      사 람  
 들 과      소 통 하 지      않 게      되 었 다 .      지 금 은  
 전      세 계 의      하 늘 이      회 색 이      되 었 다 .      아  
 참 ,      까 먹 을      뺐 했 다 .      ‘ 녹 색 도 시 ’ ( 위  
 에 서      말 한      곳 이 다 . )      이 야 기      이 다 .  
 물 론      공 기 가      많 은      곳 도      있 다 .      돔      형  
 태 의      막 을      쳐 서      깨 끗 한      공 기 만      넣 어 둔

‘	녹	색	도	시	’	라	는		곳	이		있	기	는		하	다	.	
하	지	만		아	파	트		값	이		너	무		비	싸		녹	색	도
시	에		사	는		아	이	들	은		모	두		엄	청	난		부	자
들	이	다	.		부	자	들		중	에	는		아	예		오	염	이	
없	는		화	성	으	로		갈		생	각	을		하	는		사	람	들
도		생	겼	다	.		하	지	만		화	성	에		가	면		다	시
돌	아	올		수		없	기		때	문	에		실	제	로		가	는	
사	람	은		부	자	들		중	에	서	도		극	소	수	였	다	.	
상	황	이		이	렇	다		보	니		우	리		같	은		보	통	
아	이	들	은		오	염	된		공	기	를		마	시	고		살	았	다

. 그 동안 호흡기 질환 환자는 급증하  
 여 폐렴이 사망원인 1위가 되었다.  
 이제 새는 녹색도시 안에서만 찾아볼  
 수 있는 동물이 되었다. 이제 우리가  
 사는 세상에 남은 동물이라곤 바퀴벌레  
 , 개미, 파리 정도 밖에 없다. 그  
 나마 이 동물들도 환경에 적응을 빨리  
 해서 살아남은 동물이다. 코끼리, 돼  
 지, 소, 기린, 얼룩말, 사자, 토  
 끼, 닭, 오리 같은 동물은 대기오염



으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 
병에 걸려 모두 멸종하였다. 사람들은  
돼지고기, 소고기, 닭고기 대신 녹색  
도시 안에서 키우는 메뚜기, 귀뚜라미  
와 같은 곤충들과 콩으로 단백질을 보  
충하고 있다. 하지만 나는 아직 콩을  
먹어본 적도 없다. 12살이나 되었는데  
말이다. 그 이유는 콩이 너무 비싸다  
는 데 있다. 무려 콩 500g에 10만원  
이나 한다. 이러니 우리는 그나마 가

격	이	싼	곤	충	으	로	단	백	질	을	보	충	하	고
있	다	.	또	중	요	한	사	실	이	있	다	.	위	에
서	말	한	변	종	바	이	러	스	가	사	람	에	게	도
병	을	일	으	킨	다	는	것	이	다	.	사	람	들	은
이	병	을	7	일	병	이	라	부	른	다	.	이	런	이
름	이	붙	은	이	유	는	이	병	에	걸	리	면	일	주
일	안	에	죽	는	다	고	하	기	때	문	이	다	.	처
음	감	염	자	가	나	왔	을	때	사	람	들	은	모	두
그	사	람	이	감	기	에	걸	린	줄	알	았	다	.	이
런	착	각	때	문	에	그	와	접	촉	한	많	은	사	람
이														

죽	었	다	.		7	일	병	에		걸	리	면		2	~	3	일		동
안	의		잠	복	기	에	는		기	침	을		가	볍	게		하	는	
정	도	의		증	상	밖	에		없	다	.		잠	복	기	가		지	나
4	~	5	일		정	도	가		되	면		고	열	이		나	고		기
침	을		심	하	게		하	다	가		가	끔	씩		피	를		뻗	기
도		한	다	.		6	~	7	일	이		되	면		증	상	이		갑
자	기		심	해	져		기	침	을		하	고		숨	을		못		쉬
다		피	를		토	하	고		죽	는	다	.		7	일	병	은		전
염	성	도		아	주		강	해		감	염	자	와		살	짜		접	촉
한		것	만	으	로	도		전	염	된	다	.		처	음	으	로		전

염	된		사	람	은		감	염	자	의		가	족	과		그	를		
진	찰	했	던		의	사	,		간	호	사	였	다	.		그	들	은	
모	두		7	일	병	에		걸	려		죽	었	다	.		그	런	데	
이	상	한		일	이		있	었	다	.		7	일	병	에		걸	려	
죽	은		사	람	이		모	두		녹	색	도	시	에		살	지		않
았	다	는		것	이	다	.		이		사	실	이		전	자	신	문	을
통	해		알	려	지	자		녹	색	도	시	의		아	파	트		값	은
치	솟	기		시	작	했	다	.		이	쯤	에	서		내		소	개	를
하	겠	다	.		나	는		누	리	초	등	학	교		5	학	년		정
다	은		이	다	.		나	에	게	는		아	주		친	한		친	구

가	2	명	있	는	데	그	중	한	명	은	김	준	서
이	다	.	준	서	와	는	어	릴	때	부	터	소	꿍
친	구	였	다	.	다	른	한	명	은	서	지	호	다
.	지	호	와	는	3	학	년	때	같	은	반	이	되
면	서	친	해	졌	다	.	우	리	는	공	통	점	이
많	아	서	금	세	친	해	졌	던	것	같	다	.	우
리	셋	이	공	통	적	으	로	심	각	하	게	생	각
하	는	것	은	대	기	오	염	이	다	.	어	른	들
은	너	무	당	연	하	다	는	듯	이	대	기	오	염
에	대	한	조	치	를	하	나	도	취	하	고	있	지
않	다	.	공	장	의	굴	뚝	에	서	는			

여	전	히	매	연	이	나	오	고	공	기	는	뿌	였	다	.
우	리	할	머	니	는	하	늘	만	보	면	한	숨	을	내	
쉬	셨	다	.	그	러	고	는	하	늘	을	보	고	나	를	
보	고	는	또	한	숨	을	내	쉬	셨	다	.	언	젠	가	
할	머	니	께	서	할	머	니	어	릴	적	의	이	야	기	를
들	려	주	신	적	이	있	다	.	할	머	니	어	릴	때	
는	하	늘	이	모	두	파	랬	다	고	하	셨	다	.	새	
들	이	지	저	귀	고	동	물	원	에	가	면	동	물	을	
볼	수	있	었	으	며	공	기	를	사	고	파	는	건		
상	상	도	하	지	못	했	다	고	하	셨	다	.	나	는	

그	때	할	머	니	께	서	해	주	시	는	이	야	기	를	듣
고	정	말	놀	랐	다	.	그	때	내	가	일	곱	살		
이	였	는	데	.	이	제	벌	써	할	머	니	가	돌	아	가
신	지	도	3	년	이	되	어	간	다	.	할	머	니	는	
내	가	9	살	때	돌	아	가	셨	다	.	원	인	은	폐	
암	이	였	다	.	나	는	할	머	니	가	돌	아	가	신	
걸	민	을	수	가	없	어	평	평	울	었	다	.	나		
는	그	날	이	후	로	대	기	오	염	에	관	심	이	많	
아	셨	다	.	할	머	니	가	돌	아	가	신	원	인	은	대
기	오	염	때	문	이	라	고	믿	기	때	문	이	다	.	지

호	도	나	와	비	슷	한	경	험	때	문	인	지	대	기	
오	염	에	관	심	이	많	다	.	지	호	에	게	는	생	일
선	물	로	엄	마	를	즐	라	산	거	북	이	(	녹	색	도
시	에	서	는	이	런	동	물	도	판	다	.	)	가	있	
었	는	데	엄	마	와	한	거	북	이	를	밖	으	로	데	
리	고	나	가	지	않	겠	다	는	약	속	을	어	기	고	
공	원	에	잠	시	데	려	갔	다	가	깜	박	하	고	놓	고
왔	다	고	한	다	.	그	런	데	다	음	날	공	원	에	
가	보	니	거	북	이	가	죽	어	있	었	다	고	한	다	.
대	기	오	염	이	거	북	이	를	죽	일	만	큼	심	각	했



던 것이 다 .        준 서 는       우 리 의       영 향 으 로  
 관 심 을       가 지 게       되 었 다 .       현 재       대 기 오 염  
 은       아 주       심 각 한       상 태 이 며       해 결 해 야       한  
 다 는       생 각 은       우 리 가       공 통 적 으 로       가 지 고  
 있 다 .       하 지 만       생 각 만       그 렬       뿐       우 리 는  
 무 엇 부 터       실 행 에       웁 겨 야       하 는 지       몰 랐 다 .  
 처 음 에       우 리 가       한       일 은       대 책 에       대 해  
 토 의 하 는       것       이 였 다 .       우 리 가       생 각 한  
 대 책 으 로 는       우 선       공 장 과       자 동 차 의       수 를  
 줄 이 기 ,       녹 색 도 시 에 서       나 무 를       살 려       낸



또	우	리	처	럼	대	기	오	염	을	심	각	하	게	생	각	
하	고	있	는	사	람	이	있	다	는	사	실	도	기	뻗		
다	.	우	리	는	모	임	을	만	들	고	대	기	오	염	을	
줄	이	려	는	캠	페	인	을	하	자	는	계	획	을	세	웠	
다	.	그	래	서	회	의	가	열	렸	다	.	주	제	는		
모	임	의	이	름	을	정	하	는	일	이	였	다	.	내		
가	말	했	다	.												
	“	‘	대	기	를	지	키	는	사	람	들	’	은	어	때	?
줄	여	서	‘	대	지	사	’	.	”							
	지	호	가	말	했	다	.									

	“	그	것	보	단		‘	대	기	파	수	꾼	’	이		어	때	?	
짧	고		외	우	기	도		쉽	잡	아	.	”							
	준	서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
	“	나	는		‘	대	기	파	수	꾼	’	이		좋	을		것		
같	아	.		외	우	기	도		쉽	고	,		사	람	들	의		기	억
에		남	으	려	면		이	름	이		짧	고		쉬	운		게		좋
을		것		같	아	.	”												
	내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	
	“	그	래	?		그	럼		‘	대	기	파	수	꾼	’	으	로		
하	자	.	”		이	렇	게		우	리		모	임	의		이	름	이	정

해	졌	다	.			그	다	음	은		캠	페	인		장	소	를		정	
하	는		일	이	였	다	.		내	가		말	했	다	.					
	“	학	교	가		가	장		좋	을		것		같	아	.		매	일	
학	생	들	이		등	교	하	잡	아	.		매	일	매	일		대	기	오	
염	에		대	한		문	제	를		듣	다	보	면		우	리	와		같	
은		생	각	을		가	질		것		같	아	.							
	지	호	와		준	서	가		잠	시		고	민	을		하	더	니		
말	했	다	.																	
	“	좋	아	.	”															
	이	런	게		우	리	는		포	스	터	를		붙	이	고		학	교	

에	서		대	기	오	염	이		얼	마	나		심	각	한	지		알	리
기	로		했	다	.		나	는		긴	장	하	는		지	호	와		준
서	에	게		이	렇	게		말	했	다	.								
	“	괜	찮	아	.		우	린		할		수		있	어	.		파	이
팅	!	”																	
	다	음	날	,		우	리	는		일	찌	감	치		학	교	에		갔
다	.		오	늘		하	늘	은		유	난	히		더		뿌	연		것
같	았	다	.		회	의	에	서		자	신	만	만	하	게		말	하	긴
했	지	만		긴	장	되	어		왔	다	.		1	교	시	가		끝	나
고		쉬	는		시	간	.		우	리	는		복	도	에	서		캠	페

인	을		시	작	했	다	.		준	비	해		온		포	스	터	와		
여	러		자	료	들	을		붙	이	고		연	설	을		했	다	.		
첫	날	의		결	과	는		실	망	스	러	웠	다	.		학	생	들	이	
관	심	도		가	지	지		않	은		채		그	냥		지	나	갔	던	
것	이	다	.		우	리	는		실	망	해	서		그	만	돌	까	도		
생	각	해		보	았	다	.		하	지	만		우	리	의		후	배	들	,
아	이	들	을		이	런		환	경	에	서		크	게		할		수		
없	다	는		생	각	이		의	욕	을		불	러	일	으	켰	다	.		
우	리	는		새	로	운		방	법	으	로		시	청	과		청	와	대	
에		민	원	을		넣	어	보	기	로		했	다	.		그	리	고		

학	생	들	이		어	떤		반	응	을		보	이	더	라	도		캠	페
인	은		계	속		하	기	로		했	다	.		나	는		들	뜯	
마	음	으	로		푹		쥘	다	.		둘	째		날	,		이	번	에
는		꽤		좋	은		반	응	이		왔	다	.		학	생		몇	
명	은		지	나	가	다	가	도		멈	춰		서	서		이	야	기	를
듣	고		우	리	의		포	스	터	와		자	료	를		유	심	히	
보	고		갔	다	.		6	학	년		선	배	들	은		우	리	를	
대	단	하	다	고		했	고	,		선	생	님	들	은		한		번	씩
지	나	가	시	면	서		우	리	를		보	시	고	는		대	견	하	고
훌	륭	하	다	며		격	려	의		말	을		건	네	시	기	도		하



고 , 머리 를 쓰 다 들 어 주 시 기 도 하 셧 다  
 . 둘째 날 의 성 공 에 힘 입 어 셋 째 날  
 은 더 욱 열 정 적 으 로 캠페 인 을 했 다 .  
 그 래 서 그 런 지 그 날 우 리 는 뜻 밖 의 수  
 확 을 얻 었 다 . 우 리 의 연 설 과 캠페 인 을  
 지 켜 보 던 학 생 중 몇 명 이 ‘대 기 파  
 수 꾀 ’ 에 들 어 오 고 싶 다 고 한 것 이 다 .  
 우 리 는 기 썩 마 음 으 로 환 영 했 고 총 3  
 명 이 우 리 ‘대 기 파 수 꾀 ’ 에 들 어 오 게  
 되 었 다 . 6 학 년 박 인 서 언 니 와 4 학 년

인 김진서, 이효주가 새로운 멤버이다  
 . 회원이 많아지자 ( 6명이 적다고  
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. ) 우  
 리는 ‘대기 파수꾼’ 카페를 개설하기  
 로 했다. 박인서 언니의 아이디어였다.  
 여러 번의 실수를 거친 끝에 드디어  
 카페가 개설되었다. 카페에는 여러 가  
 지 공간이 있는데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 
 보여주는 공간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 
 제시한 공간, 카페에 들어온 사람들이

자	유	롭	게		의	견	을		올	릴		수		있	는		공	간	,
회	원	으	로		가	입	할		수		있	는		공	간		등	이	
있	다	.		우	리	카	페	가		개	설	되	자		많	은		사	
람	들	이		찾	아	왔	고		우	리	는		학	교	에	서		이	미
유	명	해	지	게		되	었	다	.		또		카	페	에	서		회	원
신	청	서	를		낸		사	람	도		있	었	다	.		우	리		'
대	기		파	수	꾼	'	의		회	원	이		되	려	면		간	단	한
퀴	즈	를		제	한	시	간		3	분		내	에		모	두		맞	혀
야		한	다	.		다	음	은		우	리	의		회	의	기	록	이	다
.		(	내	가		쓴		것	이	다	.	)							

내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		
“	애	들	아	,		우	리		키	즈	들		모	두		들	어	야	
‘	대	기		파	수	꾼	’		회	원	이		들		수		있	게	
상	는		간		어	때	?	”											
지	회	가	말	했	다	.													
“	우	~		그	거		아	이	다	어		중	다	.	”				
준	서	가	말	했	다	.													
“	그	런	데		어	편		키	즈	를		상	지	?	”				
표	주	가	말	했	다	.													
“	대	기	우	들	에		관	상	서		상	야		상	지		않	을	

까	?	”																	
	진	서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
	“	객	관	식	문	제	와		주	관	식	문	제	로		하	자	.	”
인	서		언	니	가		말	했	다	.									
	“	몇		개	씩		할		거	야	?	”							
	지	호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
	“	객	관	식	문	제		4	개	에		주	관	식	문	제		2	개
가		어	때	?	”														
	내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	
	“	중	아	.		그	런	데		퀴	즈		내	용	은		무	엇	으

르		하	지	?	”														
	표	주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
	“	응	.		첫		번	재		문	제	는	.	”		(	여	기	서
부	터	는		잠	시		건	너	뛰	겠	다	.	)		내	가		말	했
다	.																		
	“	좋	아	.		이		퀴	즈	의		내	용	은		아	무	에	게
도		말	하	지		않	기	로		약	속	하	는		거	다	.	”	
	모	두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
	“	응	!	”															
	여	기	까	지	가		내	가		보	여	주	는		회	의	기	록	이

다 .      우 리 는      새 로 운      회 원 들 과 ( 인 서      언  
 니 ,      진 서 ,      효 주 )      꾸 준 히      캠페인 을  
 했 다 .      이 제      우 리 의      소 문 은      학 교 를      넘  
 어      인 터 넷 을      타 고      멀 리      퍼 져 나 갔 다 .  
 한      달 ,      두      달 ,      시 간 이      흐 를 수 록      우  
 리 는      점 점      더      유 명 세 를      탔 고      ‘ 대 기  
 파 수 꾀 ’ 의      회 원 도      많 이      늘 어 나 게      되 어  
 지 금 은      약      10 0 명 에      이 르 렸 다 .      회 원  
 수 도      많 아 지 자      우 리 는      바 빠 졌 다 .      오 전  
 에 는      학 교 에 서      공 부 하 라 ,      오 후 에 는      ‘

대	기		파	수	꾼	'		활	동	을		하	랴		실		틈	이	
없	었	다	.		게	다	가		이	번	에	는		제	일		큰		전
자	신	문		회	사	인		A	B	S	에	서		나	와		준	서	,
지	호	를		취	재	하	러		온	다	고		한	다	.		엄	마	,
아	빠	로	부	터		이		소	식	을		전	해		듣	고		얼	마
나		기	뻘	는	지		모	른	다	.		그		소	식	을		듣	고
는		바	로		준	서	에	게		전	화	했	다	.		그	런	데	
통	화		중		이	라	는		안	내		음	만		들	릴		뿐	
받	지		않	았	다	.		지	호	도		마	찬	가	지	였	다	.	
다	음	날		회	의	에	서		물	어	보	니		준	서	는		지	호



에	게		지	호	는		나	에	게		나	는		준	서	에	게		전	
화	했	던		거	였	다	.		이		말	을		듣	고		우	리		
셋		모	두		깔	깔		웃	었	다	.		이	런	게		배	꼽		
빠	지	게		웃	어	보	니		기	분	이		좋	아	져	서		그	날	
,		회	의		분	위	기	가		다	른		때		보	다		좋	았	
던		것		같	다	.		(		그	런	다	고		해	서		우	리	가
평	소	에		회	의		분	위	기	가		좋	지		않	았	다	고		
오	해	하	지	는		않	길		바	란	다	.	)		그	리	고		드	
디	어		인	터	뷰		날	,		우	리	는		반	은		긴	장	되	
고		반	은		기	쁜		마	음		이	였	다	.		무	사	히		

인	터	뷰	를	마	치	고	신	문	에	나	온	우	리	를	
본	나	는	환	호	성	을	질	렸	다	.	나	는	사	람	
들	이	신	문	을	보	고	대	기	에	조	금	만	이	라	
도	관	심	을	가	지	면	좋	겠	다	.	또	다	른		
기	뿐	소	식	을	위	해	회	의	가	열	렸	다	.	내	
가	말	했	다	.											
	“	애	들	아	!	기	뿐	소	식	이	야	.	”		
	준	서	가	나	에	게	잔	뜩	궁	금	한	표	정	으	로
물	었	다	.												
	“	뭘	데	?	”										

나	는	소	리	지	르	듯	이	말	했	다	.				
“	있	지	,	시	청	에	서	답	변	이	왔	어	!	같	
이	읽	어	보	자	.	”									
지	호	가	읽	었	다	.									
“	우	리	도	대	기	오	염	을	심	각	하	게	생	각	합
니	다	.	그	러	나	요	즘	은	다	른	문	제	때	문	
에	바	뻘	니	다	.	시	간	을	가	지	고	천	천	히	
생	각	하	겠	습	니	다	.	”							
내	가	말	했	다	.										
“	이	거	로	는	부	족	한	데	.	”					

준	서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	
“	맞	아	.		반	응	이		너	무		뜨	뜻	미	지	근	해	.	”
내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		
“	애	들	아	,		그	럼		우	리		행	진	을		해	보	는	
건		어	때	?		시	청		앞	에	서		말	이	야	.	”		
지	호	가		고	개	를		가	우	똥		했	다	.					
“	행	진	?	”															
“	응	.		행	진	에		참	여	하	는		사	람		모	두	가	
방	독	면	을		쓰	고		오	염		관	련		자	료	와		포	스
터	를		들	고		행	진	하	는		거	야	.	”					



하	자	.	”																
	다	음	날	,		회	의	시	간	에		우	리	는		시	청	의	
답	변	을		보	여	주	고		행	진	을		건	의	했	다	.		투
표	로		결	정	했	는	데		결	과	는		찬	성	이	5	명	,	
반	대	가	1	명		이	였	다	.		이	리	하	여		행	진	을	
하	는		것	으	로		결	정	이		났	다	.		하	지	만		여
러		가	지		결	정	할		것	이		남	아		있	었	다	.	
행	진	할		장	소	,		행	진	에		참	여	할		사	람	,	
행	진	할		날	짜	,		여	러		가	지		자	료	들		등	이
그	것	이	다	.		우	리	는		그	런		문	제	에		대	해	서

도	회	의	를	했	다	.	그	결	과	,	행	진	할		
장	소	는	학	교	에	서	시	작	해	서	시	청	앞	을	
지	나	녹	색	도	시	를	끼	고	돌	아	서	다	시	학	
교	로	돌	아	오	기	로	했	다	.	행	진	에	참	여	할
사	람	은	행	진	에	대	해	카	페	에	올	려	서	참	
가	신	청	서	를	받	고	길	에	서	참	여	하	고	싶	
다	는	사	람	을	만	나	면	참	가	시	켜	주	기	로	
했	다	.	그	리	고	행	진	할	날	짜	는	다	음	주	
금	요	일	,	4	월	5	일	1	시	30	분	부	터	2	
시	40	분	까	지	로	했	다	.	그	날	은	학	교		

사	정	으	로		모	두		4	교	시	까	지	만		공	부	하	기
때	문	이	다	.		마	지	막	으	로		여	러		자	료	들	은
인	서		언	니	가		말	기	로		했	다	.		그	런	데	여
기	까	지		결	정	이		되	자		지	호	가		아	리	송	한
얼	굴	로		말	했	다	.											
	“	흞	,		뭔	가		빠	진		것		같	은	데	.	”	
	준	서	가		물	었	다	.										
	“	뭐	가		빠	져	?	”										
	지	호	가		웃	으	며		대	답	했	다	.					
	“	나	도		그	걸		모	르	겠	단		말	이	야	.	”	



준	서	가	황	당	한	표	정	으	로	말	했	다	.		
“	뭐	!	너	장	난	치	는	거	지	.	”				
지	호	가	손	사	래	를	쳤	다	.						
“	아	니	야	.	진	짜	뭔	가	가	빠	진	것	같		
단	말	이	야	.	근	데	그	게	뭔	지	나	도	잘		
모	르	겠	어	.	”										
준	서	가	물	었	다	.									
“	그	럼	빠	진	것	같	은	느	낌	을	어	떻	게		
알	아	?	”												
“	음	,	직	감	이	랄	까	.	”						

그	때	효	주	가	말	했	다	.											
“	오	빠	,	빠	진	게	구	호	아	닐	까	?	”						
진	서	가	말	했	다	.													
“	형	,	그	게	맞	는	것	같	아	.	영	화	나						
책	같	은	데	보	면	자	기	들	의	생	각	을	구	호					
로	외	치	잡	아	.	”													
지	호	가	소	리	쳤	다	.												
“	맞	아	!	그	게	빠	진	거	였	어	.	”							
내	가	말	했	다	.														
“	그	럼	구	호	는	무	엇	으	로	하	지	?	”						

모	두	가	생	각	에	잠	겼	다	.	침	묵	을	깁							
사	람	은	인	서		언	니	였	다	.										
	“		‘	대	기	를	지	켜	요	’	는		어	때	?	”				
진	서	가	말	했	다	.														
	“		누	나	,	너	무	쫘	지	않	을	까	?	”						
인	서		언	니	는	고	개	를		가	우	똥		했	다	.				
	“		흙	,		그	런	가	.	”										
우	리	는	다	시		침	묵	모	드	가	되	어	생	각	에					
몰	입	했	다	.		몇	분	이	지	나	다	시	침	묵	이					
깨	졌	다	.		준	서	였	다	.											

	“	‘	우	리	에	게		말	은		하	늘	과		말	은		웃	음
을		주	세	요	’	는		어	때	?	”								
	내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	
	“	오	~		관	참	은	데	.		너	희	들	은		어	떻	게	
생	각	해	?	”															
	효	주	가		말	했	다	.											
	“	난		관	참	은		것		같	아	.		진	서	야	,		너
도		그	렇	지	?	”													
	“	응	.		나	도		같	은		생	각	이	야	.	”			
	“	나	도	,		나	도	.	”										

이	렇	게	하	여	우	리	의	구	호	는	‘	우	리	에
게	말	은	하	늘	과	말	은	웃	음	을	주	세	요	’
로	결	정	되	었	다	.	우	리	가	준	비	를	착	착
해	나	가	는	동	안	행	진	하	는	날	은	다	가	왔
다	.	참	가	신	청	서	가	쏟	아	질	정	도	로	왔
고	,	방	독	면	도	준	비	가	되	었	다	.	또	7
일	병	과	대	기	오	염	자	료	도	모	두	준	비	가
끝	났	다	.	그	리	고	시	간	이	흘	러	드	디	어
그	날	이	되	었	다	.	우	리	는	수	업	이	끝	나
고	집	에	들	러	준	비	물	을	챙	겨	왔	다	.	

(	준	비	물	에	는	마	지	막	에	지	호	가	박	박	우	
겨	서	만	든			‘	대	기	파	수	꾼	’	이	새	겨	진
1.	5m	쯤	되	는	깃	발	이	있	었	다	.	좀	더			
있	어	보	인	다	나	.	)	학	교	에	도	착	하	자	1	
시	20	분	이	였	다	.	벌	써	몇	명	이	와				
있	었	다	.	우	리	는	방	독	면	을	착	용	하	고	깃	
발	을	들	었	다	.	일	찍	온	사	람	들	에	게	도		
방	독	면	을	나	눠	주	었	다	.	1	시	25	분	쯤	되	
자	사	람	들	이	몰	려	왔	다	.	우	리	는	하	나	하	
나	방	독	면	을	나	눠	주	고	행	렬	을	갖	쳤	다	.	

드	디	어			1	시		30	분	.		우	리	는		행	진	을	
시	작	했	다	.															
	학	교	를		빠	져		나	가	자		내	가		외	쳤	다	.	
	“	우	리	에	게		말	은		하	늘	과		말	은		웃	음	을
주	세	요	!	”															
	지	호	와		준	서	가		따	라		외	쳤	다	.				
	“	우	리	에	게		말	은		하	늘	과		말	은		웃	음	을
주	세	요	!	”															
	이	어		모	든		사	람	이		외	쳤	다	.					
	“	우	리	에	게		말	은		하	늘	과		말	은		웃	음	을

주	세	요	!	”															
	사	람	들	이		창	문	을		열	고		내	다	본	다	.		우
리	는		사	람	들	을		보	며		외	친	다	.					
	“	우	리	에	게		맑	은		하	늘	과		맑	은		웃	음	을
주	세	요	!	”															